

혁신당 “김민석 총리 전북 방문 地選용 쇼”

전주세계소리축제 ‘행감 위증’ 혐의...경찰 수사

도당, 전북대 국정설명회 맹비난
“지역현안답변없이 홍보 뿐” 성도
청년회의소 주최 배경에 의문
“특정 조직 이용 공직 사유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9일 전북대에서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른바 ‘K-국정설명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총리’라는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선용’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고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절하했다.

특히 “홍보에 치우치고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역 언론의 비판처럼, 이번 방문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총리의 치졸한 정치 선행만 드러냈을 뿐이다”고 성토했다.

조국당은 “이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라는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점으로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가진 JC는 공직 소통의 장이 아닌, 명백히 정치적 성격의 조직이다”며 행사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또 “국무총리라는 공직자가 특정 조직의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대중적 노출을 시도하는 것은 총리의 직위를 사적 정치 행보에 활용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자 대국민 기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더구나 과거 청년회의소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 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 특정 조직의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이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불공정한 처사이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총리의 전북 방문이 순수한 국정 운영 목적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명백한 개인 정치 쇼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더 실망스러운 점은 이번 K-국정설명회는 내용 면에서도 참담했는데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알맹이 없는 홍보성 발언들로 채워졌을 뿐, 전북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

한 총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5각 3특’ 정책에 대한 전북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고민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 막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북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국무총리라는 최고위 정책 결정자가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였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총리가 더 이상 공직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고,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진솔한 경청과 책임감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전시성 행정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홍보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정읍

20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2026년 시군 방문에서 김관영 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및 참석자들이 하계올림픽 유치희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비위 10명 전부 ‘숨방망이’...‘셀프 면죄부’ 도마

윤리특위 공정 논란...의장 책임론도
천서영 시의원 “제식구 감싸기” 직격
예산몰아주기 의혹 등 경징계 처분

지난해 각종 논란과 파행으로 전주시민들의 원성을 산 전주시의회가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다.

가족 사업장을 통한 소상공인 예산 몰아주기 의혹, 관광성 연수 논란 등으로 의원 10명이 징계절차에 회부되고도 모



천서영 시의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이어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두 중징계를 피하면서 윤리특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비위 의원 10명에 중 단 1명의 중징계도 없이 ‘셀프 면죄부’를 준

천서영 전주시의원(국민의힘)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파행을 직격하고 나섰다.

천서영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끼리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준 의혹 등에는 ‘공개 사과’ 처분, 국가 산불채난 상황 속 관광성 연수 논란, 노인회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중대 비위 의원들 모두 ‘공개 경고’라는 면죄부성 경징계로 살아남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무려 10명의 시의원이 징계 대상이 되었음에도 한 명도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윤리특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정철 기자

이혜훈 청문회 무산 속 靑 “의혹 가볍게 볼 수 없다”

이혜훈 후보자 자진사퇴 거부
“청문회로 의혹 설명 기회 달라”
靑 대변인 발언 나카 검토 기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실자료 제출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기류가 나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이 후보자의 아파트 ‘위장 미혼’ 청약, 인턴 갑질, 영종도 땅투기, 아빠 찬스 논문, 비망록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러한 비판들도 다 무겁게 저희는 듣고 있다.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나머지



이혜훈 후보자

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겸허하게 그런 의견들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무산 이후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국민들의 권리가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은 아니며,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고 야권이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등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서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지, 지명을 철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정읍 미래산업·산림복지·생활인프라 ‘마중물’

내장산 ‘놀이터’ 도비 12억 등 투입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순항
국립숲체원 진입도 도비 10억 지원
동물의약 규제자유특구 ‘청사진’

전북도가 정읍시와 협력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도는 20일 정읍시청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정읍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부터 첨단산업 육성, 출산 인프라 구축까지 정읍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안건들이 주로 다뤄졌다.

도와 정읍시가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민생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먼저 내장산 문화광장 내 ‘기적의 놀

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7개 테마 놀이공간으로 도비 12억 원 등 총 4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부권 출산 인프라 공백을 메울 공공 산후조리원도 순항 중이다. 정읍 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입산부실과 신생아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월 본격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주와 군산에만 있어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부권 산모들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던 만큼 건립에 기대가 크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시설 유치도 탄력받고 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은 총 2,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에 돌입하며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읍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정읍 북면 북흥리 일원에 들어서는 국립숲체원은 전북 최초의 산림복지 거점시설로 지역 내 산림치유·휴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 이용객 접근의 어려움에 따라 정읍시는 연장 1.72km, 폭 8m 규모의 2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27년 숲체원 개원 시점에 맞춰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을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려는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읍시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등 특화 인프라를 갖춰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역에 선정됐다.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되며,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독성시험 간소화 등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도는 180㎥ 규모의 입주 공간을 확보한 정읍시를 특구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유치, 출산환경 개선 등 정읍시의 현안을 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 창출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 애로 해결사 자리매김

민선8기 누적 애로 5,641건 접수
실질 해소율 78.2%…매해 상승
전력수급·투자유치 등 개선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 기업들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전담 대상이며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기업 경영 전반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에 연계되고 처리 결과는 기업에 신속히 안내된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선보인 전담제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접수된 애로사항이 5,641건에 이른다.

이 중 63.2%가 해소된 가운데 1년 이내 해결이 예정된 단기검토 건까지 포

함하면 실질적인 해소율은 78.2%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인력 관련 애로가 842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안전 745건(13.2%), 판로·마케팅 730건(12.9%), 자금 704건(12.4%)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1,712건 가운데 1,257건을 해결하는 등 연도별 해소율은 2023년 54.6%, 2024년 61.5%, 2025년 73.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축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군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 환경 정비(제초·제설), 단순 제도 문의 등 기업 현장의 생활 밀착형 문의가 늘었다. 도는 이를 단순한 통계 개선이 아닌, 기업들이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게 느끼고 사소한 어려움까지 편하게 공유하게 됐다는 신뢰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 기업 경영에 변화를 이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A기업은 새만금산단 신축공장의 전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공무원이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 한국전력과 협의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장 준공 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B기업은 원료 수급 애로를 겪던 중 전담 공무원의 연결로 도



지난 2022년 12월 14일 1기업 1공무원전담 기업애로해소 출범식 <사진=전북도>

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220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2024년에는 C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에는 시군 단위의 현장 밀착형 성과도 나타났다. 진안군은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폐수 처리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추

진해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은 경매 취득 공장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지연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으로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소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는 기업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숙한 행정 파트너가 생겼다는 점이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작은 불편부터 경영 전반의 과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전북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을 맞췄다.

사업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보육 안전망 확대 정책 운영... 0세반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내 90일 이상 거주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하며, 정부 보육료 단가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0세 월 17만원, 1세 15만원, 2세 12만4천원, 3~5세 8만4천원이며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

외된다.

이달부터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3에서 1대2로 개선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국가책임형 무상보육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급·간식비는 영아 1일 2,600원, 유아 3,740원으로 상향된다.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된

한병도 “국힘 백만 당원 통일교·신천지 유착 의심”

“조직화로 5만명 입당” 의혹
“정교유착설” 특검수용 압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고,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는 보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바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



한병도 원내대표

있다”며 “어제 국민의힘이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발표한 당원이 통일교·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 올린 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참에 정교 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자”며 “뗏목이라 하면 지금 당장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영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공직후보자의 검증까지 내팽개쳤다.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전북자치도 특례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스마트제조 지원 특례 신설
외국인유학생 체류요건 완화 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의 전북특별법은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로 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에는 △자 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벌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반 담임 월 28만원, 연장반 전담 월 14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침돌봄 수당은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전담 교사를 지정할 경우 하루 1만4천원을 지급하며, 최대 2개 반까지 지원한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생활속 난방비 절약 꿀팁



온수 사용후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물을 데우기 위한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 시 보일러는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보일러를 켜다가 다시켜면 오히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어요!



방한용품 적절히 사용 하여 체온 유지하기

내복이나 양발을 챙겨입고, 전기매트를 사용하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돼요!

농진청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AI 기반 스마트 축산 탄소중립 실천 등 20개 사업·154억 규모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2026년 전국 94개 시·군 207개소에서 총 154억여원 규모로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축산 전환’을 핵심 목표로, 연구 성과를 농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먼저 고온 스트레스 저감용 첨가제를 급여하는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추진한다.

연구 결과, 첨가제 급여 시 등지방두께는 49.2% 감소했고, 등심단면적은 15.3% 증가했다.

또 근내지방도는 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황성, 보령, 울산 등 20개 지역에 6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또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가축분뇨 퇴비화 및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농가 규모에 맞는 발효시설을 구축할

으로써 퇴비 부숙을 촉진해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2026년에는 안성·음성·포항 등 13개 지역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축산 기술 지원 확대= 이미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비육돈 출하 선별,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사업에 더해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모든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을 신규 도입한다.

조음과 임신 진단기와 인공지능(AI)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신 여부 판정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배 후 18~21일에는 88.4%의 정확도로 임신을 판별할 수 있고, 22~25일에는 95.7%까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농가의 번식 관리가 더 쉬워지고, 비생산 일수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실·장성·합천 등 15개 지역에서 9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시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26~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술 설명회를 연다.

/김영태 기자

중기중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공고

내달 20일까지 신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한다.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AX·DX’, ‘환경규제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해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올해 4년차로 지난해보다 4억원 증액

된 총 17억원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사업비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AX·DX분야 협동조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고도화 및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협동조합 디지털 전환을 새롭게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조합은 사업공고를 확인해 2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협동조합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설 특별자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조달 등 기여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경욱)는 설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
업체당 지원한도 : 5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 2026. 1. 26. ~ 2026. 2. 13. 기간 중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지원내용 : 대상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일반지원부문 지원비율로 비례배정)를 저리(2026. 1월 현재 연 1.0%)로 금융기관에 지원

지원 제외 :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시설’, ‘병의원’, ‘약국(소매)’ 등 대출제한 업종 및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업체

한국은행 전북본부 김경욱 본부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 운영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을 활용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 지역민 아웃사랑 ‘동참’

NH전북농협 지역사회 공헌단 300만원 기탁

지역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 위한 기부금 전달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이 동참했다.

지난 16일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 의장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지난 2026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설립 7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박병철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인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 7주년을 맞은 NH전북농협지역사회 공헌단은 박병철 의장 제안에 설립된 봉사단체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 임직원 급여 0.5%가 매월 기부되며 재원으로 마련된다.

NH전북농협지역사회 공헌단 기부에 의해 마련된 재원은 ‘NH해피하우스 집고쳐주기’, ‘사랑의 연탄 기부’, ‘소외계층 쌀’, ‘김치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큰 보탬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역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 위한 기부금 전달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이 동참했다.

전북경진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협력해 공간·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연구자원·전문인력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한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진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이 함께 운영 중이다.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업 입주, 시설·장비 활용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해 초기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위치한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바이오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도와 기업의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전북으로 기업 이전 및 지정 설치를 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선정 기업에는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과 실증·병원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화자금 최대 15백만원이 지급되고, 입주공간 또는 코워킹스페이스

가 제공된다. 또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진료상 및 임상시험 등의 병원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업 모집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기술사업화 전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 공고의 상세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야간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전북농관원 ‘막걸리 전문점 1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거짓표시 5개소·미표시 7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6일간) 야간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한 5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취약 시간인 저녁 시간에만 운영하는 야간 개업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 7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야간 개장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뿐만 아니라 ‘곱창’, ‘막창’, ‘족발’, ‘보쌈’, ‘호프집’ 등으로 단속을 확대해 원산지 표시 사각지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26년 JUMP UP’특판 예금 출시

내달 27일까지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는 ‘26년 JUMP UP 특판 예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월 27일까지 판매하는 이번 특판 예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금리는 3개월 연 2.40%, 6개월 연 2.50%, 12개월 연 2.55%이며, 12개월 가입 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8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전북은행 수시 입·출금 계좌의 예금 평균잔액이 1백만원 이

상 충족 시 연 0.20%, 특판 적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0% 등 최고 연 0.30%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으로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50억원 한도이며, 총 판매 한도는 3,000억원으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26년 JUMP UP 특판 예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농촌진흥청 ‘똥보귀뚜라미’ 발굴

생육 특성 분석 곤충 사육 새로운 대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식종인 ‘똥보귀뚜라미’(Duolandrevus ivani)를 발굴해 실내 사육 적정 조건을 밝혔다.

국내 파충류 먹이 곤충 시장에서 귀뚜라미류는 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한 종에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다.

쌍별귀뚜라미는 생산성이 우수하나 단일 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질병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쌍별귀뚜라미 대체 종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주도 자생종인 ‘똥보귀뚜라미’를 새로운 사육 후보군으로 발굴했다.

더불어 ‘똥보귀뚜라미’ 생육 특성을 정밀 분석해 실내 사육 적정 조건 온도에 따른 생육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5~30도 범위에서 ‘똥보귀뚜라미’ 생존율과 발육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했다.

‘똥보귀뚜라미’ 적정 사육 온도는 기존 쌍별귀뚜라미 농가의 사육 시설 온도와 비슷하므로 농가에서 새로운 시설 투자 없이도 ‘똥보귀뚜라미’를 도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유정기 권한대행,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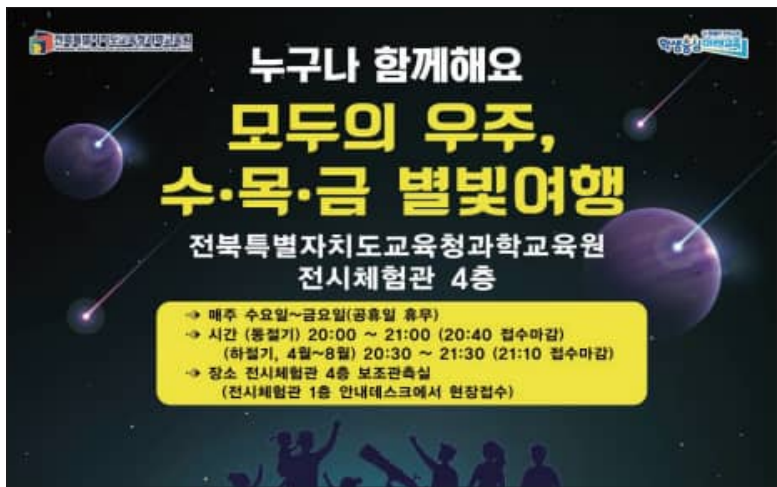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상황·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 확인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성현유치원을 방문, 유아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안정

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유 권한대행은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고, 유아들의 놀이·수업 활동을 참관하며 교육과 돌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차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

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원들은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유아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실있고 안전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하원 시간 통학차량에 탑승해 유아 하원 과정과 통학차량 안전 관리 실태도 확인하고, 유아 안전 확보

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수목금 별빛 여행’ 개막

도민 대상 연중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교육원은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는 특별 프로그램 ‘누구나 함께해요! 모두의 우주, 수·목·금 별빛 여행’을 도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동절기에는 매주 수·목·금 오후 8~9시까지 진행되며, 하절기(4월~8월)에는 오후 8시 30~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천체관측 활동을 통해 우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는 도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관측실의 304mm 대형 굴절망원경과 보조관측실의 천체망원경으로 달, 행성, 쌍성,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천체 관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과학 공작체험으로 대체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순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천체 관측 활동으로 도민들의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천문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

22일까지 전문과정 연수 학생 학력 향상 등 지원

전북교육청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유형과 학습 걸림돌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기부여와 학습전략 지도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을 심화하는 게 목적이다.

교원 학습코칭 연수는 기본·심화·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해 운영된다.

이번 전문과정은 심화과정 이수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직무연수(18시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코칭 수업 디자인 △성장 마인드셋 기반 코칭 전략

△표준 학습코칭 교육과정안 개발 △학교 현장 중심 실습과 피드백 등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실행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해 실제 교실에 적용 가능한 학습코칭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문과정 연수 이후 학교 현장 적용과 연계해 2026학년도 ‘학습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 운영을 수행하며, 실제 교실 속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실천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이 실제 학생의 학습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통해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 학습코칭 기반 수업·학습관리 →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전북교육청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는 학생의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심화하는 게 목적이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현대, 2025시즌 우승 ‘관중의 힘’

경기당 평균 관중 1만8425명으로 집계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2025시즌 K리그1과 코리아컵을 모두 제패하며 더블 우승을 달성했는데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시즌 내내 안정적인 관중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 여가 공간으로 기능했다.

2025시즌 전북현대의 누적 관중 수는 36만8505명,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84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현대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시즌 30만 관중을 돌파한 기록으로, 비수도권 연고 구단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

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건설된 시설로,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제한적인 예산 여건 속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며 작게는 게이트 도색부터 크게는 LED조명 설치까지 현장 체감이 높은 개선부터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조성하고 스

토어를 리뉴얼 오픈해 경기 외 시간에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마련했다.

LED 조명 설치를 통해 경기 관람 환경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했으며 각종 노후 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정비 등 기본 인프라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현대는 “더블 우승과 관중 증가라는 성과 뒤에는 연고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안정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력 유지를 통해 시민과 팬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 운영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철학을 바탕으로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를 실제 수업 설계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 연수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 1월 현재 PYP(초·12교, MYP(중) 13교, DP(고) 6교 등 총 31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전주이중초와 영만초, 화산중이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아 전북형 수업혁신 모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양현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임실 Wee센터 지원학생 ‘추수상담주간’ 운영

전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위기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추수상담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수상담 대상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 학생과 학부모로, 학생 개인의 정서 상태와 학교·가정 적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추수상담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마음꾸러미 전달 △위기 스크리닝 등으로 구

성됐다.

특히 위기 스크리닝을 통해 학생의 현재 심리·정서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상담이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선 교육장은 “추수상담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 과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을 통해 위기 재발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민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절대 금지!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기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군산 수송동, 주민 작품 상설 전시 ‘수송갤러리’ 오픈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민철)가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를 ‘수송갤러리’로 조성해 2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수송갤러리’는 ‘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공간’을 주제로, 꽃그림세밀화·캘리그라피·서예·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오픈을 기념해 수강생들의 교육 과정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운영한다.

첫 전시에는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주민들의 도전이 하나의 예술로 꽃피운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송갤러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열린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상반기 내 완료 당부

군산시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평생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폐렴증, 뇌수막염 등)을 50~80%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정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1961년생(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본인의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일시 체류 중인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며, “환절기와 동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비교적 활동이 원활한 상반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꼭 접종을 마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7일까지 지역 농업인 600여 명 대상 농업인 실용교육

익산시가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실용 중심의 영농 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전라작물인 논농 교육을 시작으로 마늘·양파(21일), 고추(22일), 벼(27일) 등 5개 작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전문 기술 교육과 함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종자·묘 유통 제도와 과학영농기술 보급 방향 등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농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의 한해 농사를 설계를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다이로움 “2월엔 100만원 충전”

한달간 한도 상향 충전·지정 정책가맹점 결제 시 최대 20% 혜택

익산시 대표 효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2월 한 달 동안 파격적인 혜택으로 시민을 찾아간다.

익산시는 2월 한 달 동안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설 명절과 신학기 준비로 가중되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다이로움 이용 시민은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곧바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

기존 한도 대비 혜택 금액이 4만 원이나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가맹점을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까지 늘어난다. 익산시가 지정한 정책지원가맹점과 착한가맹점, 다이로움 택시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이로움 정책지원 가맹점은 △익산 치킨로드 7개소 △착한가격업소 35개소 △청년놀 12개소 △지역 서점 29개소 △글로벌문화관 3개소 △다이로움 택시 1,000여 대다.

이들 가맹점에서 다이로움 결제 시 10%의 정책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착한가맹점 58개소에서는 자체적으로 5~10%의 상시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의 파격적인 할인 효과로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는 ‘민생 백신’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과 신학기라는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이로움으로 지역사회 곳곳이 상생하는 따뜻한 2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정 운영 방향·추진과제 점검

주요업무계획보고회 개최 시민체감변화에역량 집중

군산시가 재생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성과를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연결하는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20일, 시정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 정책 기조와 군산의 지역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주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시는 ‘군산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든든한 일상’을 시정 운영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성장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민생과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총 705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 95개와 계속사업 610개로 구성되며, 국·소별 핵심사업 34건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아이와 청년을 함께 키우는 인구대응 패키지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 △시민정책소통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첨단 신산업 육성 △새만금관할구역 결정 및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등 군산의 중장기 성장과 직결되는 계속사업도 논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구

조 전환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복지·안전 분야에서 시민 체감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신산업 기반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군산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돌봄·의료·안전 분야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청렴과 책임 행정을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행정 신뢰도 강화했으며,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정의 성과는 계획이나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는지로 평가받는다”라며, “민생·복지·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작더라도 확실한 체감 성과가 나타나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7년 국비 확보 위한 본격 행보

최재용 부시장, 행안부 중기부·농림부 등 방문

익산시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20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방문단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을 차례로 찾아 주요 사업이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 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용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목천포천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연계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확장을 위한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조성’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처별 예산안 단계부터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의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 반영의 핵심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농업인 역량 향상 도모 2월 3~5일까지 진행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농업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관심 작목을 반영해 총 4회

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2월 3일과 4일에는 식량 작물인 논콩과 벼 재배 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2월 5일에는 지역 소득 작목인 수박과 복숭아 재배 기술 과정이 이어진다.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과 세부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10년의 동행’ 정한을 익산시장,주민과의 대화

29일까지 총 4회 진행

익산시가 3선 시장으로서 시정을 이끌어온 정한을 시장의 임기 중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며, 시민의 목소리로 익산의 미래를 그리는 소통 행정의 정점을 찍는다.

이번 행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세심하게 진행된다.

회차별로 △1회차 오산면과 중양·평화·모현·송학·마동 △2회차 남중·영등1·영등2·어양·신동 △3회차 왕궁·춘포면 및 인화·동산·팔봉·삼성동 △4회차 합열읍 및 황등·함다 등 북부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익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깊이 있는 담론이 오가는 자리로 마련된다.

3선 임기 동안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 △인도 정비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용을 예정이 다.

정한을 익산시장은 “지난 10년 익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만난 시민 여러분의 눈빛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익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1초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도입 ‘착착’

정읍시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시 교통과 직원들은 최근 시내순환버스 277면 노선에 직접 탑승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운영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탑승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료환승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 변화를 예측하고, 환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중심의 정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

력했다.

이날 교통과 직원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반응을 살폈다. 시민들은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이용의 편의성, 승·하차 시 안전 환경 등 평소 느꼈던 다양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또한, 버스 기사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졌다. 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 여건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유)마한호텔 은파팰리스,군산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유)마한과 호텔 은파팰리스를 운영하는 조계식 대표가 20일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기부자 모임이다.

조계식 대표는 이번 기탁으로 군산시 16호이자 전북 114호 회원으로 등록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읍시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총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노출에 따른 중독 여부 검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세 이상 80세 이하가 해당된다.

올해는 총 647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1인당 총 22만원의 검진비 중 90%에 해당하는 19만 8000원을 시에서 지원받게 되며, 본인은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정읍아산병원을 통해 상반기 중 검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유군수 “도지사 완주 방문, 정책협의 대야”

유히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관해 “통합강행 자리 아냐·공조 논의” “피지컬AI 광역 책임 분담 필요”

유히태 완주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문은 특정 사안을 강행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다”며 “대화가 차단되면 완주군의 요구와 지역 발전 과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특히 완주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피지컬 에이아이(physical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이미 2025년 정부 2차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 국비 219억 원이 반영됐고, 2026년 본사업을 위한 국비 766억 원도 확보됐다”며 “본사업 추진을 위해 남아 있는 1,500억 원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협의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분담을 이끌어 군민 부담은 줄이고 실익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군수는 봉동읍 일원에 약 2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과 885억 원 규모(국비 450억, 도비 53억, 군비 382억)로 컨벤션을 포함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통합 여부와 무관하

게 추진 중인 13차 28개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수천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외의 긴밀한 정책 공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병원이 없는 완주군에 산재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제는 소모적인 지역 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법적 최종 권한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떡볶이 페스타, 전북 지역특화형 공모 ‘우수’

도비 포함 2억 7천 예산 확보 작년 4만명 방문 9억 경제효과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도비 2,8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800만 원 규모의 축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지역특화형축제를 공모하고 있다. 2026년에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순창군은 이 가운데 우수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음식인 떡볶이를 결합해 기획된 대표 먹거리 축제다. 순창 고추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시작된 이 축제는 지난해 두 번째 개최를 통해 그 가능성과 성과를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한층 더 입증했다.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찾았고, 약 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뒀다.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21점을 기록하며 먹거리 콘텐츠와 지역문화 홍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축제는 11월 중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도, 전주대학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찾아라 떡볶킹(AR 체

험)’, 유명 셰프와 함께가는 쿠킹클래스 ‘I’m Fine 떡볶이’, 창의적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 ‘떡볶이 대접’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떡볶이 판매 부스를 비롯해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마투어 프로그램 등은 축제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동계 전지훈련 840명 유치…지역 상권 ‘훈풍’

유소년 축구 28개팀 스토브리그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 진행

남원시는 지난 9일부터 동절기 유소년 축구와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팀 840여 명을 유치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열기로 지역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 1차는 지난 9일부터 시작돼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2차 훈련이 이어진다. 게이트볼 전지훈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됐으며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2월 2일

부터 시작해 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번 유소년 축구 동계 전지훈련은 스토브리그 형식의 훈련과 연습경기로 운영되며, 전국 28개팀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반디비체육센터 1·2구장 등 지역 내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한다.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집중 훈련을 진행한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는 물론 마트, 카페,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도 온기

가 확산되고 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에도 체류형 스포츠 방문객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안정적인 시설과 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종목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지훈련팀 방문이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사정착·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주택 수리·신축 70% 지원 추진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등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순창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

주 중인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이사정착비 지원’은 초기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2인 이하 세대 30만 원, 3인 이상 세대 50만 원이다.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소득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주택 수리 또는 주택 신축 시 건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초기 신청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사전 상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겨울동화축제’ 道 겨울축제 육성 선정

관광 비수기 극복 기반 마련 수도권 홍보·콘텐츠 연계 추진

남원시의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겨울축제 축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30백만원을 포함한 총 75백만원의 사업예산으로 겨울철 관광 비수기 극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 겨울축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축제 완성도 제고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부서는 강남 센트럴터미널 등 전광판을 활용한 수도권 사전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부서는 신관사포부임행사 등 남원 대표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남원시립농악단과 남원시립국악단 공연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고전소설 캐릭터를 활용한 퍼레이드, 화롯불체험을 비롯한 전통놀이, 남원전래동화 구연, 전통매듭 만들기 체험, 화인당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겨울과 동화 콘셉트를 중심으로 남원의 전통문화와 이야기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체험형 겨울축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남원만의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기초수급·기초연금 유형 따라 최대 131만원 지원

순창군이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총 관내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학적 기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력 손실 기준은 한 쪽 귀 기준으로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진단은 순음청력검사와 청

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며,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17만 9천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조례에 따라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청기 처방전(진단서)과 검사 결과지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난청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권승환 회장 취임

군수·군의회장 등 100여명 참석 회장 이·취임식 함께 열어

완주군재향군인회가 지난 19일 완주군 민강협력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권승환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히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군의회, 재향군인회 완주군지회 회원,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기총회 보고와 회장 이·취임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재향군인회 완주군지회의 운영 방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김경원 이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권승환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권승환 신임 회장은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안보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완주군지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수지면 산촌마을, 구술채록마을문학집 발간

마을 구전설화 등 집대성 결실

남원시 수지면은 재)전북특별자치도 문화 관광 재단에서 공모한 ‘전북형 마을 문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올해 1월 수지면 산촌 마을 이야기를 엮은 구술·채록집 ‘삼태봉 정기를 받은 산촌마을’과 마을문학집 ‘계절과 사랑의 품격, 머물다 돌아오는 길’을 발간했다.

전북형 마을 문화 프로젝트는 행안부 인구 소멸 기금으로 추진돼 추진 인구 감소 지역 내 마을 문화자원을 구술·채록해 콘텐츠로 창작하고 소멸·감소하는 마을 문화 재조명을 추

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10개 마을이 선정됐다.

산촌마을 오현준 이장은 ‘산촌 문화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히 어르신 자문단과의 기교 역할을 수행하며 600년간 구전돼 온 이야기들을 수집했으며 그 결과 고려시대 양 씨 시조보 창조 신화와 견두산 호랑이 설화, 지명 유래 및 풍수지리 등을 집대성한 구술 채록집을 발간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권진희, 오현, 이근영, 이제경 4명의 전북 작가가 산촌마을의 이야기에 영감받아 마을 문학집을 펴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취약 아동 선제적 발굴 위기 개입 강화

완주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 314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학습 지원과 문화 체험 등 26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총 131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후원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영·유아 조기 발굴과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 돌봄 및 양육 가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부모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필수 프로그램과 함께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영역에서 총 2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예방과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 공백 집중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 요인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안전교육 등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과 함께 △찾아가는 아동발달 서비스 △아동 심리검사 지원 △해충 없는 클린홈 △1:1 방문학습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사후 모니터링으로 성장과 생활 변화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보건소, 비만예방 1기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운재)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운영한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로 △체력단련실 운영 △체성분 및 인바디 측정 △식습관·운동상담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 및 등록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연계 △맞춤형 모자보건사업 연계 △절주상담실 운영 △간기질환을 위한 워크온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 구성돼 있다.

또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분기별로 70명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 자율운동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오늘도 건강해짐(GYM)’ 1기를 진행한다. 2026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인 ‘오늘운동완료(오운완)’을 확대·개편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연계 운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미션, 우수자에게 상품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해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산림조합, 꽃감축제서 컨설팅 앱 홍보 부스 운영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지난 16일~18일 완주군청 대형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 제11회 완주꽃감축제에서 산림조합공익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조합은 축제 기간 동안 △산림경영지도 컨설팅 △산림사업종합자금 안내 △임업용 면세유 공급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숯가꾸기사업 신청 접수 등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산림경영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내돈내산’을 소개하고, 기기에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키면 장바구니세트를 선물로 나누어 주는 등 이벤트로 축제 방문객에게 호응을 얻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지역 산림경영지도원과 연결된 산림경영, 조림, 숯가꾸기, 임산물 생산·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필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를 통해 조합원 및 군민들에게 산림지원의 활용, 보호, 문화관련 정보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성대)는 지난 19일 신림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대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현규 신림면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에도 지역 봉사활동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한빛가축약품상사,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는 한빛가축약품상사(대표 김건호)가 20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새해를 맞아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건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빛가축약품상사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다고내푸드, 전주시노인복지관에 후원품 전달

추어탕 꾸러미 2,100세트 약 2천만원 상당 전달

지역 향토기업인 (주)다고내푸드가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후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시와 (주)다고내푸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는 20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강용 (주)다고내푸드 대표, 한명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다고내푸드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추어탕 꾸러미 2,100세트(한가역 2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지원된 추어탕 꾸러미는 서원노인복지관과 양지노인복지관에 전달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강용 (주)다고내푸드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다고내푸드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국제와이즈멘 정음녹두클럽, 장애인복지관서 짜장면 나눔

장애인 230여 명에 식사 제공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남지방 정음녹두클럽(회장 김용훈)이 지난 19일 정음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음녹두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3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양치 마를 두르고 조리해 참여해 정성껏 면을 삶고 소스를 볶아 그 의미를

더했다. 조리된 음식은 회원 10명이 맡아 이용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와 함께 직접 배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용훈 회장은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의 작은 나눔이지만, 이 따뜻한 식사가 서로의 일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음=김정진 기자



NH농협 진안군지부, 진안군에 2,040만원 전달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는 지난 19일 진안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2,0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탁금은 NH농협 진안군지부 임직원들의 지역 발전과 상생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매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전년보다 기부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한정호 NH농협 진안군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3년 연속 이어진 직원들의 참여가 지역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적상면 7개 사회단체 연합, 성금 650만원 기탁

20일 무주군 적상면 7개 사회단체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참여 단체는 △적상면 발전협의회(위원장 이성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유지당), △이장협의회(회장 정태성), △청년회(회장 이희재), △자율방범대(대장 박희용), △의용소방대(대장 전현석), △4H(회장 이근봉) 등으로 총 650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전현석 적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단체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귀감이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된 성금은 적상면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 옥산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군산시 옥산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중기)가 새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0일 옥산면에 의하면,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제 한파와 추운 날씨로 인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장님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옥산면 이장협의회 김중기 회장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옥산면 고안성 면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년째 변함없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해주신 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이서면 최은례 위원, 성금 100만원 기탁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은례 위원이 이서면의 맞춤형복지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은례 위원은 전북우정청rc봉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평소에도 이서면 취약계층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은례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겨울철 화재예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수칙



▶전기장판은 이불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금지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 물질 두지 않기



▶사용하지 않을때 전원코드 뽑기

〈一事一言〉



각자도생의 시대, 한반도는 자강 평화의 길이다(2)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평화 담론의 하나로 양국체제론에 따른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론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평화공존론은 1920년대 레닌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이후 핵위기가 고조되면서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쇼프 서기장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전쟁회피와 핵억제, △비군사적 경쟁,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과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측이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북측이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적 평화공존론은 출발부터 '주권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남북한의 '2국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원래 취지가 평화통일의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전적인 개념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 통일의 목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평화 담론도 단일하지 않다. 평화 담론을 군축평화론과 자강평화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군축평화론은 기본적인 뿌리를 서구 진보진영의 평화론에 두고 있다. 군축평화론은 강대국의 제국주의 확장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지만, 제국주의 확장

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중견국 또는 약소국의 평화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구 중심의 평화 담론과 중견국·약소국의 현실적인 평화론은 '전쟁 반대'라는 슬로건은 공유하지만, 그 동기와 목표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동기와 목적에서 전자는 제국주의 견제, 후자는 생존과 자결에 두고 있다. 또한 방법론에서 전자는 군비통제에 치중하는 데 비해, 후자는 억제력을 위한 자주국방을 중시하고 있다.

서구의 평화론은 주로 강대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자국 정부의 팽창적 외교정책이나 군사개입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반성이자, 전쟁 비용과 자국 군인의 희생을 줄이려는 내부적인 동기가 강하다.

이에 비해 자강평화론에선 평화가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주권의 문제이다.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주권을 침탈당하거나 경제적 예측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방어적' 평화론이다. 즉, 평화가 곧 '자결권'과 직결된다.

군축평화론은 군사적 맥락에서의 억제력(Deterrence)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며 군비통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강평화론은 완전한 자주국방까지는 어렵더라도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은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군축은 강

대국 패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축평화론이 '강자의 자제'를 촉구하는 담론이라면, 자강평화론은 '약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투쟁에 가깝다. 따라서 냉혹한 현 국제정세 속에서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중견국·약소국 입장에서 서구적인 평화군축의 논리가 공허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역대 민주진보정부는 자강평화론의 입장에 서 왔다. 어느 보수정부보다도 많은 국방비와 첨단 무기개발에 힘써 온 것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대량살상무기 금지 조약·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대인지뢰금지협약」, 「집속탄금지협약」과 「핵무기금지협약(TPNW)」에 대해 민주진보정부도 가입을 미루었다. 이는 남북분단과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현실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서구적 군축평화론을 내세워 민주진보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개발과 도입, 나아가 일부 조약 미가입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무-V 탄도미사일, 원자력추진 잠수함, 경항공모함의 개발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강대국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이라거나 심지어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서 지역 패권을 분담하며 제국주의적 질서유지에 동원되는 '아제국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중견국가 한국이 처한 실존적 안보 위기를 철저히 외면한 서구 진보주의적인, 혹은 교조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강평화론을 강대국 환상, 아제국주의라는 비난은 '중견국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강대국이 짜놓은 제도적 틀 안에서만 숨 쉬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논리일 뿐이다. 한국의 자강평화론은 주변 강대국들의 감압외교로부터 국가주권과 국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거부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국제정세의 위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자강평화를 내세운 억제력도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자강을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도 냉혹한 국제현실을 고려해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자강평화를 추구할 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도민 눈높이에서 다시 묻는 지방정치의 자결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기초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209명에 이르는 대규모 평가였고 그 과정과 기준은 이전보다 한층 엄격하고 촘촘해졌다. 단순한 공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겨냥한 제도적 진화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 중심'과 '강화된 도덕성'이다. 단체장 평가는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도덕성·윤리 검증 범위를 개인과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했다.

이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주변 관리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해 온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전염병,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정책 성과를 중점 반영한 점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설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정·경제·삶의 질·자치분권 분야의 지표를 객관화·세분화한 것도 성과를 말아놓지 않고 수치와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의원 평가는 형식과 출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정활동을 중시에 놓았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과 시정질의회와 대표건의안,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를 정량·정성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본령을 분명히 반영한 조치다.

당원평가를 전 시·군 기초의회로 확대하고 당무 기여도를 반영한 것 역시, 지역과 당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평가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법률·행정·교육·환경·청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참여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신설·개선된 기준을 처음 적용한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지방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평가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결과가 공천과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로 연결된다.

또한 이번 평가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평가 기준과 취지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는 내부 기준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만큼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전북 지방정치의 신뢰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선택이야말로 전북 지방자치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문화재열전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사찰본
-지정일 - 2016년 12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

<div><div><div>JBT</div><div>전북타임스</div><div>Jeonbuk Times</div><div>2026년 1월 21일</div></div><div>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div><div>www.jeonbuktimes.co.kr</div><div>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div></div>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시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감정 및 실정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연금 바탕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일자리·생활인구 확대 지역 소멸 위기 돌파

부안군이 2026년을 민선 8기 후반부의 본격적인 결실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와 생활인구 중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부안군은 2026년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반 바람연금 모델 구축, 첨단산업푸드플랜·관광이 맞물리는 세바퀴 경제 고도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은 민선 8기 종착점이면서 민선 9기의 시작점으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의 미래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부안군은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 7-8기 추진한 정책을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확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부안군 2026년 신년 설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추진 전국 최초 RE100 산업단지 전환·국제케이팝학교 유치 집중 수소생산기지 완공 하루 1톤 규모 청정수소 생산·공급

◆ '바람을 소득으로'...부안형 바람연금 본격 추진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다.

실증단지 이미 운영 중이며 시범·확산단지는 오는 2030년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은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장수·순창군에서 시범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할 경우 부안군은 오는 2030년 이후 전 군민 대상 월평균 약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 성장 기회'...RE100 산단·국제케이팝학교 유치 집중

부안군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해 해상풍력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전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방위산업 실증단지 및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새만금 3권역 내부 개발사업 가속화를 위해 연결도로 구축,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추진으로 부안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세바퀴 경제 고도화'...친환경에너지·농업·관광 선순환 구축

부안군은 수소산업·푸드플랜·관광이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루 1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안군은 오는 2028년 전국 최초로 농촌형 부안수소도시가 완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완공된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집적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엔레포츠타운을 중심으로 부안형 푸드플랜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에서 돈이 도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농가는 600여 농가, 회원 소비자는 86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매출은 25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을 통해 창출된 매출이 부안 지역의 가공업체와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로 다시 순환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체류·재방문 전략 강화'...지역소멸 위기 돌파구 생활인구 증대 최선

부안군은 생활인구 확보를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장년층 재방문 유도과 20~30대 청년층 체류 확대를 병행해 연령별 체류인구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양·갯벌·생태관광,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글로벌 휴양제류 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민생안정·참여행정 적극 추진'...군민 체감도 제고

부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재정집행과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어민공익수당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주민 밀착형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터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 복원, 생태관광, 블루카본 조성 등 ESG 일자리 확대와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결실창래(結實蒼來·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뜻으로 성과의 완성과 미래의 개척을 의미)'를 2026년 신년 화두로 삼아 군민과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을 충실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2026년을 바람연금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득은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에너지를 지역의 힘으로 키우고 정책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부안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인터뷰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형 바람연금 바탕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6년 신년을 맞아 전 군민 월 25만원 부안형 바람연금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 공유 재원이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안군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순창·장수군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한 결과 부안은 2030년 이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략 월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안형 바람연금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 피해 보상, 송·변전 설비 보상,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 성과가 반드시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